

< 의인과 악인 >

시편1:6 / 새찬송가 304 (통일 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악인은 아닙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꾀를 남의 희생을 통해 이루려는 사람입니다(시37:12-15). 악인은 양심이 화인 맞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딤후4:1,2). 게다가 깨달음이 없어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음으로 거부합니다(시10:3,4). 나아가 자신의 악한 꾀로 한때 세상에서 승승장구합니다(시5,6).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 해도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롬3:21-24).

악인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지만 의인은 죄를 범하면 항상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합니다. 예수님도 행동을 의롭게 하지만 깨달음이 없어 교만해진 바리새인보다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18:11-14).

2.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이에 대해 순교자 정약종은 ‘이 땅에서의 보상과 심판 및 하늘나라에서의 보상과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겪게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한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 받게 하시기에 의인이 고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져주십니다(시34:19). 또 그 삶에 간섭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항상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잠24:16). 그리하여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옆드러지지 않습니다(시37:24).

의인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받는 가장 귀한 복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복과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복입니다(시55:22). 또 영원한 천국과 면류관을 그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에 반해 악인의 보상은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도 한두 가지 선한 것이 있는 악인에게 그 보상을 잠시 잠깐인 이 땅에서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종말의 심판이 예고되어있는 일시적인 평안이요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안 넘어질 것 같이 형통하며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넘어지면 아주 망해버립니다. 악인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인데 그것은 미끄럼틀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시73:16-20).

죄인들의 죄는 서로 용서해 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시94:1-3).

< 적용 & 실천 >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합시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합시다.